

북한사회의 변화와 고등인력의 양성과 재편 (1945~1960)

신효숙(고려대, 숭실대 강사)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북한사회의 변화 속에서 고등인력의 양성과 그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다. 해방 이후 전후 50년대는 북한 역사에서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격동의 시기였다. 해방 후 국가 건설과 정부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를 둘러싸고 다양한 정파가 갈등하며 향후 국가의 방향을 모색해 나갔다. 특히 이 시기는 여러 정파 간에 절대적 권위가 부재한 가운데 국정 방향, 전후 경제복구, 사회주의체제로의 이행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대결을 벌였다.

그러나 전후 복구가 마무리될 무렵, 스탈린의 죽음으로 야기된 사회주의권의 정세 변화는 북한의 정치지형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1956년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화 운동과 이어서 촉발된 동유럽 국가들의 자유화 운동 속에서 북한 내에 반김일성 세력이 결집되었다. 김일성 반대 세력은 동년 8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축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그 여파로 관련자들 외에 잠재적 반대세력과 지식인들이 전국적으로 전개된 ‘반종파투쟁’ 운동에서 대부분 숙청의 과정을 밟게 된

다. 이로써 북한사회 전반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논의의 장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달리 표현하자면, 북한정권은 1950년대 중반의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문제를 제기했고, ‘반종파투쟁’의 사상검열운동을 통해 반대세력을 일소하고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까지의 북한사회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정치체제, 경제구조, 이데올로기와 같은 정치·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된 경향이 있다. 북한사회는 정치체제나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이해될 수 있지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특히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고등인력에 대한 이해와 그 양성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적 측면에서 고등인력의 양성 정책을 분석하되 이를 북한사회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내외 정치·경제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고등인력 양성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그 사회의 외적 구조와 내적 변화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한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대내외 정치·경제적 변화와 교육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체제의 근간이 되는 당·정관료, 기술 전문가, 학자, 문화예술인들이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양성되는 고등인력의 양성 현황과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해방 후 4,50년대는 국가 건설을 목표로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였던 시기이다. 고등인력 양성의 현황은 여러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시기 구분에 따라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로 대별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주제는 고등인력의 성격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해외유학생 파견 현황과 지식인들의 사상검토 과정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해외로 다수의 유학생을 파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현황에 대한 기존 연구가 전무하다.

또한 반종파투쟁 과정에서 다수의 유학생과 지식인이 숙청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도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 50년대 말 정치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상검토와 숙청이라는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되는 지식인과 고등인력, 이들은 ‘주체’의 형성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고등인력 정책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의미 있게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고등인력’이라는 용어는 북한에서 흔히 ‘민족간부’, ‘간부’¹⁾로 사용되고 있다. 해방 직후 ‘간부’라는 용어는 ‘국가 건설의 기본역량’이라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현재는 ‘당원’이라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간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당간부로 의미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고등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고등인력의 범주에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양성되는 인재를 근간으로 모든 분야의 전문인력을 포함한다. 물론 당간부, 정권기관의 관료들, 군사 간부도 이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상 고등교육기관에서 양성되는 인력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 국가 건설과 사회주의적 민족간부

1) 해방 후 국가건설기(1945~1950)

북한현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주요 논쟁은 전통

1) 북한의 『백과전서』(1982)에 의하면, ‘간부’는 “당의 기본핵심역량”을 의미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은 간부들을 통하여 당원들과 대중 속에 전달되며 그 관철을 위한 활동도 간부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집행된다. 김광운, “북한 권력구조의 형성과 간부 충원”(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9쪽.

주의적 시각과 이에 비판적인 수정주의적 시각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 논쟁은 특히 북한의 국가건설과 정치체제 형성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전통주의적 시각은 구미의 ‘전체주의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냉전과 남북 분단의 책임이 세계 적화를 목적으로 한 소련에게 있다고 본다. 소련의 제국주의, 팽창주의적 성격은 사회주의권의 확대로 나타나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소련이 북한을 ‘소비에트화’ 하여 ‘괴뢰정권’을 수립했다고 본다.²⁾ 이런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국가건설기는 북한의 내적 요인이 간과된 채 소비에트화 되는 과정으로 결정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수정주의적 시각³⁾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수정주의적 시각은 전체주의적 접근법이 구미의 시각으로 사회주의와 북한 사회를 바라봄으로써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논거를 개진하였다.

북한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러한 논의들은 최근 양자의 결합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다. 논의의 방향은 북한체제 형성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외세의 규정력과 동시에 북한 자체의 내적 요인이 고려될 때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⁴⁾ 해방 후 북한사회는 미·소 냉전과 남북한 분단이라는 외적 요인과 함께 유교적 전통, 일제 식민지배, 사회경제구조의 낙후성 등 내적 요인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고등인력 양성 정책도 바로 이러한 내·외적 요인의 고려 속에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해방 후 고등인력의 현황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열악한 상황이었다. 1945년 8월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했을 때 일제가 패망하면서 북한

2) 김남식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제5권(서울: 한길사, 1989), 332쪽.

3) 수정주의적 입장의 저서로는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서울: 일월서각, 1986).

4) 김광운, “북한 권력구조의 형성과 간부 충원,” 6쪽.

내 기준 산업시설의 상당부분을 파괴하였다. 북한 자치위원회가 일본인이 운영하던 산업체와 공장, 교육문화기관을 접수하였으나 이를 복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기관들을 정상화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의 교육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일제는 식민통치기간 내내 한국인의 고등교육을 제한하였고, 일본인과 구별하여 한국인의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민족차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자면, 일제하 한국의 유일한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의 교직원 분포를 보면, 1943년에 총 교직원 283명중 한인은 23명으로 전교직원의 8.13%를 차지하였다.⁵⁾ 또한 일제시기에 공업, 농업, 의학, 교육 분야 등 중등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학교가 설치되었는데, 중등학교 입학생 구성을 보면 한국학교이지만 일본인 학생이 훨씬 많았다. 공과 계열의 경성공업전문학교는 한국학생과 일본학생의 비율이 1:7, 광산전문학교가 1:4, 부산수산학교가 1:6이었다.⁶⁾ 일본은 한국인 학생들의 고등 기술교육의 기회를 가능한 한 제한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문학교에서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심화되었다.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는 일제의 유산은 해방 후 북한의 국가건설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소련군과 북한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산업의 복구와 인민생활을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급선무는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시기 인력양성 정책은 새로운 교육개혁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 국가건설기 북한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⁷⁾

5) 오천석, 『한국신교육사』(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352쪽.

6) 이만규, 『조선교육사』, 상권(서울: 을유문화사, 1947), 367~369쪽.

7)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개혁,”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1999), 208~212쪽.

첫째, 북한은 일제의 식민교육의 청산 위에서 새로운 교육이념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36년의 일제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근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제 청산은 기본 과제였다. 해방후 북쪽 지역에는 소련군이 진주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가와 공산주의자들이 통치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김일성 중심의 빨치산파, 소련파, 중국과 연계를 가진 연안파 그리고 국내 공산주의자들이 주축이 되어 인민정권을 구성했다. 친일 경력의 정치가나 교육자들은 교육의 주도세력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교육개혁안은 일제 식민교육의 잔재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억눌렸던 인민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교육 기회의 확대에 주력하면서 초등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였다. 과거 유산계층과 친일세력의 입지를 강화했던 학교교육은 그 계급적 성격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1946년 3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단행된 토지개혁은 중농과 부농을 혁파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로 학교의 계급구성은 노동자, 농민이 다수를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교육개혁은 토지개혁이나 중요산업 국유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개혁과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둘째, 북한교육은 소련의 대한정책 및 소련군정의 정책기조에 입각하여 그 기초가 수립되었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9일 대일 선전포고와 함께 한반도 북쪽에 진주하였고 미국은 남쪽에 진주하였다. 북쪽에 진주한 소련군은 북한정권의 창달에 산파역을 담당하고 1948년 말에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소련은 미군정의 직접통치와 달리 간접통치의 방식을택했다. 1946년 2월에 소련군은 형식상 모든 권한을 북한 인민정권으로 이양하고 자신들은 고문으로서 자문의 역할을 하는 간접통치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 분야는 소련의 영향을 폭넓게 받아들

이게 된다. 소련군정에서 파견한 교육고문 및 소련계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교육건설에 참여하였으며 소련의 교과서와 교육 자료들이 북한 학교교육에 지침서이자 참고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 교육에 끼친 소련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교육은 짧은 기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련의 인적, 물적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기본적으로 북한대중의 높은 교육열과 통일 민족국가의 염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대중들은 소련의 경험을 열심히 따라 배웠고 학교의 복구와 건설에 자신들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 대중들의 교육적 욕구와 소련과 북한정부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방향에 기초하여 북한은 소련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 교육의 기초를 확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련군정기를 포함한 1940년대 말까지 북한 고등인력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고등인력 정책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정치·경제·문화 분야를 지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사회주의적 민족간부의 양성을 목적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을 창설한 점이다. 둘째, 북한은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에 근간이 되는 고등인력을 ‘사회주의적 민족간부’ 양성의 문제와 동일시하였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맑스-레닌주의 기본’,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 ‘정치경제학’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이수하였고 정치교양사업에 참여해야 했다. 셋째, 김일성종합대학을 모체로 여타 대학들이 창립·발전되었으며 짧은 시기에 급속한 팽창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해방 이전에 북한지역에 단 하나의 대학도 없었으나 1949년 현재 15개 대학에 11,984명이 망라되었다. 넷째, 소련의 고등교육 정책을 도입하여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과 생산에서 유리되지 않은 채 배울 수 있는 야간대학, 통신대학 형태의 교육기관을 병행하여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북한의 고등 교육 제도와 특성이 소련의 적극적인 교육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소련

식 고등교육체계와 유사하게 발전되었다는 점이다.⁸⁾

2) 한국전쟁 및 전후 복구건설기(1950~1960)

북한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의 하나는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민족해방혁명’을 꿈꾸고 있던 북한지도부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전쟁 초반에 인민군은 파죽지세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갔으나 미국 주도의 유엔군이 남한을 지원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고, 이어서 중공군의 참전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전쟁은 공방전과 소강상태를 거듭하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전쟁은 휴전협정으로 종결되었지만 북한지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렸다. 미군의 폭격이 주요산업시설 대부분과 농토의 상당 부분을 폐허화시킨 것이다. 전쟁으로 북한 전역에서 8,700여 개의 공장과 70만 호의 가옥, 5,000여 개의 학교건물이 파괴되었다. 인력 손실도 막대했으며 산업 생산량도 격감했다. 전쟁이 끝난 1953년의 공업총생산은 전쟁 전에 비해서 4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으며 농업생산량도 25퍼센트 이상 줄어들었다.⁹⁾ 그러므로 북한은 전후 복구와 건설이라는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수해야 했다.

1950년대 북한교육은 한국전쟁기와 전후 복구건설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한국전쟁기 인력정책의 특징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대학교육을 재개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로 유학생을 파견함으로써 전후에 필요한 각 분야의 고등인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학을 계속 운영하려고 노력하였고 연구소를 마련하여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하도록 지원했다. 이것은 전후 복구에 필요한

8)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2003), 167~180쪽.

9)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73쪽.

고등인력을 계획적으로 양성하고자 힘이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필 요한 전문가와 기술자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 없으며, 인력의 부족은 경 제 복구와 발전을 그만큼 지연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여러 대학이 안전지대로 옮겨 수업을 재개하였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전쟁개시 후 곧 평안북도 구성군으로, 다시 평안남도 순천 군으로 옮겼다. 김책공대, 원산농업대학, 평양사범대학은 물론 중앙당 학교,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 등이 분산 소개되었다.¹⁰⁾ 전쟁 기간에 북한 지역에서의 인력 양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정부는 각 분야의 유능한 인재들 몇 천 명을 선발해 소련을 비롯한 중국, 동구권 공산국가에 유학생으로 파견하였다. 특히 정권의 근간이 될 만 경대유자녀학원 학생들은 모두 유학생으로 파견되었으며 상당수의 자 도총 자체들도 해외 유학생에 합류하였다.¹¹⁾

전후 북한사회는 정치·경제적 특성과 변화를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전후 복구 건설기, ‘반종파투쟁’과 김일성 단일지도체계의 확립기로 구 분된다. 전후 복구시기 인력양성의 특징은 전후 기술원조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문 고문과 기술자를 파견하였고 이들을 통해 북한에 기술 전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953년부터 1958년까지는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의 기반을 확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후 복구를 위해 막대한 원조를 제공했던 기간이다. 소련정부는 북한의 복구건설을 위해 10억 루블을 무상공여하기로 결정했다. 전후복구계획은 소련을 필두로 중국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계획 실행으로 구체화되었다. 각 산업부문별, 단위공장별, 도시별로 해당 국가들에게 복구건설

10) 『조선교육사』, 제3~6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서울에서 『북한교육사』(서울: 교육과학사, 2000) 한 권으로 재발간, 237쪽.

11) 2003년 3월 6일, 최선옥 구술.

과제를 할당하고 원자재, 설비는 물론 기술 지원에 이르기까지 담보하도록 하였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1953~1954년 동안에만 약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각종 원자재, 기계, 설비들을 제공하였다. 이들 국가의 무상원조가 1954년 북한 총예산의 31.6%를 차지했다는 사실로부터 이 원조계획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¹²⁾

원조계획에는 기술 원조의 일환으로 각 나라별로 고문과 기술자의 파견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소련고문들은 전후 복구계획의 중심에 있었다. 1957년 1월 현재 상업성, 전력성, 농업성, 국가계획위원회 등 북한의 내각과 행정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소련고문 17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북한 간부들은 그동안 필요한 사업 경험을 어느 정도 배웠으므로 앞으로는 도움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고문의 도움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¹³⁾ 이 외에도 1953년 7월 31일 소련 전문가 55명의 파견을 결정했는데 그중 48명은 2달간, 7명은 1달간 파견하기로 했다.¹⁴⁾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는 1955년 3월 현재 총 250명의 전문가가 북한에서 일하고 있다. 이 중에서 108명은 중립국위원회에서, 60명은 병원에서 의료요원으로, 약 70명은 전문가로서 일하고 있다.¹⁵⁾ 또한 함흥시·홍남시 복구건설위원회 조직에 관한 김석형의 구술에 따르면 함흥·홍남시에만 독일기술자 200명, 체코 기술자 100명이 상주하고 있었다.¹⁶⁾ 이와 병행하여 북한은 건설, 석탄, 전기, 경공업, 농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사회주의 국가

12) 백준기, “1950년대 북한의 권력갈등의 배경과 소련,” 역사문제연구소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서울: 역사비평사, 1998), 454~455쪽.

13) АВПРФ(러시아대외정책 문서보관소), ф 0102, оп.13, п.7, д.6, л.48, л.62.

14) Там Же, оп.9, п.44, д.9, л.173.

15) Там Же, оп.11, п.60, д.79, л.9.

16) 김석형 구술, 이향규 녹취,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오』(서울: 선인, 2001), 397쪽.

의 행정부처나 산업체에서 실습을 받도록 산업실습생으로 파견하였다.

전후 북한사회의 특징으로는 ‘반종파투쟁’의 정치 갈등과정에서 지식인 및 학계의 변화가 동반되었다는 점이다. 1950년대는 북한정치사의 전환점을 그을 만한 권력투쟁이 전개된 시기였다. 권력구조의 변동을 알리는 정치 갈등은 이미 한국전쟁 과정에서 일어났다. 무정, 허가이, 박현영 등 잠재적인 김일성의 경쟁자들이 숙청되었다. 특히 남한 공산주의운동의 최고지도자 박현영이 1953년 간첩죄, 국가전복죄로 숙청되었다. 북한정계에서 박현영의 숙청은 김일성이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유일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동시에 김일성 중심의 단일지도체제의 형성이 보다 쉽게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음을 의미했다.

이어서 1950년대 권력투쟁의 정점은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이었다. 권력투쟁은 전후 복구건설노선과 사회주의적 개조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스탈린 개인숭배가 비판되면서 반김일성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반김일성운동은 동년 8월에 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일성을 비판하는 사건으로 발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 사건은 권력구조의 재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반대파 대다수는 ‘종파분자’로 낙인찍혀 권력의 핵심에서 축출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지식인들에 대한 사상검토작업과 숙청이 병행되었다. 이 결과로 북한사회에는 김일성의 비판세력이 거의 일소되었으며 김일성 중심의 단일지도체제가 확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국 혁명의 중요성과 ‘주체’가 강조되었다. 교육기관에서는 조선노동당사와 혁명역사, 김일성 혁명활동 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전후 북한사회의 교육적 특징으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맞추어 중등의무교육과 무료교육제가 발표된 점이다. 로동당은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당중앙위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중공업 우선,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을 경제복구건설의 기본노선으로 확정하였

다. 동시에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전초작업으로 일부 지역에서의 경험적인 농업협동화 실시를 결정하였다. 1954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경험적 농업협동화를 시작으로 1958년에 농업협동화는 물론 개인상공업 부문의 협동화 작업도 완료하였다. 이로써 북한사회는 1958년 사회주의적 개조를 마무리하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맞물려 새로운 교육정책이 발표되었다. 경제 및 교육 부문이 전쟁 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1956년에 초등 의무교육제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농업의 협동화가 완료되는 1958년에는 교육의 사회주의적 조치를 완료하였다. 초등의무교육에 이어 중등 의무교육과 무료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1959년 10월 28일에는 기술교육제도를 발표하였다. 교육개정의 이유는 원론적으로는 이론과 실제, 교실내의 수업과 생산 노동을 결합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와 전문기를 급속히 양성해야 할 필요성에서였다. 이러한 교육적 조치에 힘입어 북한 산업화의 인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3. 고등인력 양성의 특징

1) 고등교육기관의 확대

해방 후 북한 지역에는 대학이 하나도 없었다. 한국인 고등인력을 제한하고자 했던 일본의 정책으로 경성제국대학이 유일한 대학이고 나머지는 전문학교나 각종 학교의 형태였다. 해방이 되어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고 경성제국대학이 남쪽에 위치하게 되면서 북한에는 대학이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북한은 1946년 9월 15일에 김일성종합대

학을 창립하였다. 대학 창설의 목적은 “진보적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민경제와 문화를 건설할 지도력이 있는 고등기술인들을 발달시키는 것”¹⁷⁾이었다. 여기서 ‘고등기술인’은 일반적인 의미의 전문가나 고등인력을 의미하지 않았다. ‘진보적 민주주의 원리’라는 사회주의 사상으로 교육된 고등인력을 양성하고자 했다. 즉 북한지도부가 양성하고자 했던 ‘고등기술인’은 소련군이 진주하고 공산주의 계열이 정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사상으로 교육된 전문 인력을 의미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다른 대학들도 설립되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시발로 함흥의과대학, 홍남공업대학, 청진교원대학 등이 신설되어 1949년 말에는 15개로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는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으로 그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교육시설들이 파괴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1953년 8월에 노동당 중앙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전후 제1차 3개년 경제계획(1954~1956) 및 교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경제계획의 방향은 북한경제를 한국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이에 상응하여 고등교육계획은 “우선 고등교육과 기술교육 사업을 강화하여 민족 간부를 많이 양성할 것”이 강조되었고, “보통교육부문은 1956년까지 전쟁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 결정되었다.¹⁸⁾

전후 3개년 경제계획을 마무리하면서 1956년 8월 전원회의에서도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기술 인재 양성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전망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제1차 5개년 경제계획(1957~1960)에서는 북한 경제의 공업화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경제계획을 추진해

17) 북조선인민위원회 사법국, 『북조선법령집』(평양, 1947), 226쪽.

18) 『조선교육사』, 308~309쪽.

가는 과정에서 기술자와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다. 인민 경제의 각 부문에서 부족한 기술자, 전문자를 자체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증대가 선차적인 문제였다. 중공업부문만 보더라도 기술자,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겨우 50%밖에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957년 8월 내각 명령 「기술자 및 전문가 양성 전망계획작성에 관하여」를 통해 고등교육 기관을 증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고등교육기관의 신설 확장에 따라 1949년 15개였던 대학이 1960년에는 78개의 대학에서 9만 7,000여명의 대학생들을 망라하는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¹⁹⁾

<표 1> 5개년 경제계획시기 창설된 고등교육기관

| 번호 | 대학명 | 창립년월일 | 번호 | 대학명 | 창립년월일 |
|----|----------|------------|----|----------|------------|
| 1 | 해주교원대학 | 1957 | 11 | 사리원농업대학 | 1958.9.1. |
| 2 | 원산교원대학 | 1958 | 12 | 청진광산금속대학 | " |
| 3 | 평남기술교원대학 | 1958 | 13 | 함흥수리대학 | 1959.9.1. |
| 4 | 평양체육대학 | 1958.9.1. | 14 | 회천공업대학 | " |
| 5 | 해산림업대학 | 1958.5. | 15 | 해주의학대학 | " |
| 6 | 함흥농업대학 | 1958.12.1. | 16 | 원산경제대학 | " |
| 7 | 평양기계대학 | 1958.9.1. | 17 | 평양외국어대학 | " |
| 8 | 평양경공업대학 | " | 18 | 평양법률대학 | " |
| 9 | 평양운수대학 | " | 19 | 원산수산대학 | 1959.9.20. |
| 10 | 평양연극영화대학 | " | 20 | 해주농업대학 | 1960.12.1. |

출처: 『조선교육사』, 제3~6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김동규·김형찬 편집, 『북한교육사』(서울: 교육과학사, 2000) 한 권으로 재발간, 412~413쪽.

5개년 경제계획 기간 중에 신설된 대학들은 인문계열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이공계열 대학으로 이루어졌음을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민경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기술 인력이 절대

19) 위의 책, 410~412쪽.

적으로 부족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등교육정책이 필요했다. 북한정부는 고등교육기관을 확대하되 기술자와 전문가들의 양성에 중점을 두어 전체 대학에서 70% 이상을 공과 및 자연과학 계열에 할당하도록 하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즉 고등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양성 규모를 늘리는 데 있어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간부들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며 대학생 총수의 70% 이상이 공과계통과 자연과학계통에서 배우도록 할 것”이 결정되었다.²⁰⁾ 이와 같은 기술인력 정책의 결과로 건설, 기계, 전력, 화학 등의 중공업부문과 지질, 임업, 금속 부문 기술인재 양성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중등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의 양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전문학교를 확장하고 중등기술자들을 대량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1956년에 기술전문학교수는 103교, 학생수는 3만 4,000여 명(사범전문학교 제외)이었고, 야간기술학교는 56교, 학생수는 5,400여 명이었고 기술보습반에서는 5,3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중등전문학교 졸업생 총수가 약 2만 2,000여 명에 달하였다.

결과적으로 1960년에는 고등 및 중등기술 인력을 포함한 사회 각 부문에서 일하는 기사, 기수, 전문가의 수가 1956년에 비하여 2배로 늘어난 13만 3,000여 명이었는데, 이는 53년에 비해 610%가 증가된 수치이다.²¹⁾ 이때에 이르면 북한의 대규모 공장, 기업소들이 타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기술 원조에서 벗어나 자체 북한인 기술자, 전문가들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20) 위의 책, 402쪽.

21) 위의 책, 418쪽.

<표 2> 대학의 증가와 경제발전계획

| | 년도 | 대학수 | 학생수 | 경제발전계획 |
|---------------|------|-----|--------|-----------------------|
| 국가건설기 한국전쟁 | 1945 | | | |
| | 1946 | | | |
| | 1947 | 4 | 3,000 | 제1차 1개년 계획(1947) |
| | 1948 | 11 | 8,731 | 제2차 1개년 계획(1948) |
| | 1949 | 15 | 11,984 | 제1차 2개년 계획(1949~1950) |
| 전후복구기 | 1950 | | | |
| | 1951 | | | |
| | 1952 | | | |
| | 1953 | 15 | 11,268 | 제1차 3개년 계획(1954~1956) |
| | 1954 | 16 | 7,700 | |
| | 1955 | 16 | 12,857 | |
| | 1956 | 19 | 16,592 | |
| | 1957 | 20 | 20,510 |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0) |
| | 1958 | 23 | 25,640 | |
| | 1959 | 37 | 52,000 | |
| | 1960 | 71 | 97,000 | |

출처: 김선호, “고등교육,” 김형찬 편, 『북한의 교육』(서울: 을유문화사, 1990), 288쪽.

한편, 고등인력의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교원 구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꾸준히 제기된 현안이 고등인력을 양성할 대학의 증설과 이에 충원될 교수의 확보였다. 해방 당시 다수의 과학인, 문화인들은 미군정이 주둔한 남한에 편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북쪽에서 자체적으로 교수 요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남한에서 북으로 학자들을 초빙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김일성 종합대학을 포함한 주요 대학에는 남한 출신 교수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종합대학 교수진의 핵심은 대부분 남에서 초빙된 학자들이었다. 1946년 남한에서 초빙되어 교수 봉령을 받은 대표적인 교수로는 도상록(양자물리학 전공), 김석형(역사), 박시형(역사), 김한주(농학), 이종식(법학), 김지정(수학), 박극채(경제학), 전평수(물리학), 박종식, 신구현, 황영식, 김수경, 유연락, 우정주, 최윤식, 곽대홍, 계옹상, 한필하, 홍성해,

최용달, 조영식, 강대창, 도유호, 황도연, 김종희, 최옹석 등이다.²²⁾ 이어서 1947년 이후에도 종합대학에는 이승기(고분자화학), 정근(물리), 한인석(물리), 이동화(국제사) 등 30여 명 이상의 남한학자들로 재충원되었다. 종합대학에 초빙된 남한의 학자들은 대체로 경성제국대학 출신, 유능한 학자, 진보적 정당의 당원, 서울국립대학창설안 반대운동의 주역을 담당한 교수라는 점에서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 간 다수의 저명한 학자들은 종합대학 창설의 주역이자 이후 북한의 학계를 대표하는 학자, 문화인, 과학자가 되었다.²³⁾

또한 고등교육의 발전에 있어 소련에서 파견된 소련계 한인들의 참여를 들 수 있다. 북한의 교육개혁 및 고등교육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소련계 한인으로는 남일과 박일을 들 수 있다. 1946년 10월 북한에도 착한 남일은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국 부국장에, 박일은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에 임명되었다. 특히 1941년에 레닌그라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카자흐스탄 종합대학에 근무했던 박일은 초기 대학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초기 종합대학에 충원된 소련계 한인으로는 전영환, 이동화, 허익, 박영, 김용성, 채규형, 김택영, 오완묵, 명월봉 등이 있다. 이들은 국가건설기에 ‘선진적 소련의 교육제도와 교육사상’을 북한 교육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²⁴⁾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1950년말 반종파투쟁이 전개되고 소련파에 대한 숙청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소련계 한인들은 교육문화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교육계의 저명한 소련계한인으로는 교육성 부상 장익환,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유성훈, 강동정치

22) 김기석,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에 관한 일 연구,” 『교육이론』, 제10권 제1호(1996), 230쪽.

23) 위의 글, 235~236쪽.

24) 신효숙, “해방 후 북한 고등교육체계의 형성과 특징,” 『북한연구학회보』, 제2권 2호(1998), 207~209쪽.

학교 교장 박병율, 중앙정치간부학교 교장 강상호 등 상당수에 이른다. 이들은 1950년말 소련으로 돌아갈 때까지 소련교육을 모델로 북한교육의 기초를 확립하고 전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 간부를 양성하는 데 주목할 만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등교육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소련의 ‘고문’ 제도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45년부터 1948년 말까지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정은 민간행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소련민정국을 설치하였다. 소련민정국은 북한의 각 행정부처, 산업체, 교육문화기관에 이르기까지 ‘고문’ 제도를 두어 민사행정 전반을 지도하고 자문하였다. 1948년부터 대학에 ‘고문’으로서 소련학자들을 초빙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문 고문 및 기술자 초빙의 제도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48년 5월 20일경 소련과 북한 간에 체결된 각서에 따라 소련 교수들이 북한 대학의 ‘고문’으로 초빙되었다. 고문으로 파견된 대표적인 학자로는 뤼샤꼬브(로어문학강좌), 차스뚜힌(세계사강좌), 츠뿌로브(맑스레닌주의 기본강좌), 빵끄라또브(교육학부), 레베제브(철학강좌), 오사지꼬(정치경제학강좌), 까데스까야(지리학부), 뜨라후긴(화학부), 자말예브와 비노 그라도브 교수부부(생물학부 및 동물학강좌), 씨부힌(물리수학부 및 수학강좌) 교수 등이 있다.²⁵⁾

소련에서의 교수 초빙은 한국전쟁기간과 그 이후에도 이루어졌다. 쏘꼴로브(철학강좌), 유리예브(정치경제학강좌), 아크씨노브(맑스레닌주의 기초강좌), 쏘로비예브(물리수학부), 마이브라다(경제학부) 등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사업의 복구에 참여하였다. 전후 시기에는 이고르 네스또로비치(무기 화학), 도보로찐(수리 물리), 캄네브 이완(다원주의 기본), 루다쉐브스끼 쎄몬(인체 및 동물 생리학), 데멘쩨브(지형학 및 지리학

25) АВПРФ, ф. 0102, оп.4, п.8, д.10, лл.3~6;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평양: 김일성종합대학발행, 1956), 59~63쪽.

사), 자위도비취(인민경제 계획화), 베스빠리(상품학) 등이 파견되었다.²⁶⁾

고등인력 양성의 성격을 좌우하는 북한 교원 구성의 특징으로는 첫 째, 북한 최고의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은 남한에서 초빙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소련계한인들 및 소련에서 파견된 학자들이 고등교육체계의 확립과 인재 양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셋째는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 자체 내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들이 교수로 충원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유학생으로 파견되어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 특히 소련 학위자가 교수로 충원되기 시작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고등교육기관에는 해외와 연계를 가진 교수들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계의 특징은 1957년부터 반종파투쟁이 본격화되고 ‘주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반종파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한출신 학자들, 소련파, 연안파, 그리고 소련 학위자들이 사상검열의 표적이 되었다. 게다가 195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1960년대 내내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중소분쟁이 이러한 고등인력 정책에 변화를 촉발하였다. 북한은 중소분쟁 과정에서 자주노선을 걷게 되면서 ‘경제에서의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했다. 해방 이후 오랫동안 해외에 의존하여 양성했던 전문 인력은 1950년대 후반 국내외 정세의 변화 속에서 자주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2) 해외 유학생 및 실습생의 파견

전후 복구를 전후한 1950년대 북한의 특징적인 고등인력 정책은 사

26)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 100, 135~136쪽.

회주의 국가로 학생과 전문가를 대량으로 파견한 점이다. 해외 유학생은 일찍이 1946년 말부터 파견되기 시작했다. 유학생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목적에서 파견되었다.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소련으로만 유학생을 파견하였으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유학생 파견 국가의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1951년부터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로 학생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1952년부터는 중국, 동독, 평가리아, 몽고로 파견했고, 1956년부터는 알바니아로 파견하기 시작했다.²⁷⁾

<표 3> 북한의 해외 유학생 및 실습생 파견 연람표

| | 정식 유학생 | 실습생, 시찰단, 전쟁고아들 교육 |
|---------------------|--|--|
| 1946년 (46/47학년도) | • 소련: 고등교육기관에 약 230명 파견 (교육시찰단 및 기타 포함 총 299명) | • 소련 교육시찰단 30명 |
| 1947년 | • 소련: 학부생 120명, 대학원생 20명 파견 | |
| 1948년 | 소련으로 60명 파견 | |
| 1949년 | • 소련: 학부생 60명, 대학원생 20명 | * 1950년 현재 소련 고등교육기관에 학부생 478명, 대학원생 18명이 공부 중 |
| 1950년 | 소련으로 165명 파견 | |
| 1951년 | 소련으로 129명 파견 | |
| 1952년 | 소련으로 262명 파견 | |
| 1953년 | • 소련: 전문학교 250명, 학부생 200 명, 대학원생 60명 파견을 요청함 • 폴란드: 대학원생 포함 고등교육기 관에 130명, 전문학교 150명 파견 • 체코슬로바키아: 전문학교 200명, 고등교육기관 200명 | • 소련: 문화예술 실습생 11명(1년), 과학전문가 25명(3개월), 산업실습생 414명, 민주청년동맹 연수생 30명 • 중국: 민주청년동맹 연수생 75명 • 폴란드: 전쟁고아 1,000명 • 루마니아: 전쟁고아 1,500명, 220 명 추가파견 • 체코슬로바키아: 전쟁고아 700명 |
| 1954년 | • 소련: 학부생 80명, 대학원생 20명 * 사회주의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에 총 | • 소련: 농업전문가 실습 65명(8개월), 직업교육 실습생 10명(6개월), 소련공 |

27) АВПРФ, ф 0102, оп.16, п.24, д.6, лл.97~99.

| | | |
|-------|---|---|
| | 3,700명의 북한유학생이 공부 중. | 산당 최고학교 25명, 소련공산청년동맹 중앙당학교 15명(1년), 민주청년동맹 파견단 12~15명(1개월) • 폴란드: 북한의 전문기사, 기술자, 노동자 100명 파견 |
| 1955년 | • 소련: 고등교육기관 40명, 국제관계대학에 5명 파견. | • 소련: 노동자 실습생 4명, 소련 건설성 산하 실습생 20명 |
| 1956년 | • 소련: 소련사회과학원에 북한과학자 5명 파견, 학사원에 10명 파견. | • 소련: 소련내무성 산하 실습생 23명, 소련 당사업경험 연수 2명, 교원 시찰단 20명(2개월), 교육기관 시찰단 5명(1개월) • 1956년 3월 현재 전쟁고아들이 헝가리 340명, 폴란드 1,000명을 포함해 동유럽에 총 5,000명, 중국에 2만여 명이 양육되고 있음 |
| 1957년 | • 소련: 학부생 38명, 대학원생 37명, 전문학교 2명, 음악학교 2명 파견 • 중국: 몇 천 명의 학생과 전쟁고아들 * 1957년 7월 현재 소련 외 사회주의권 고등교육기관에 총 1,895명 유학(폴란드 440명, 동독 380명, 체코슬로바키아 500명, 헝가리 20명, 루마니아 270명, 불가리아 140명, 알바니아 5명) | * 1957년 7월 현재 전문학교 학생 현황은 중국 200명, 폴란드 400명(이중 240명은 전쟁고아들), 체코슬로바키아 580명(이중 210명은 전쟁고아들), 루마니아 130명, 불가리아 130명, 동독 470명(모두 전쟁고아들임) |

북한의 해외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1946년 말 최초의 유학생 299명이 소련으로 파견되었다. 이를 시발로 소련 유학생이 매년 100~200여 명씩 파견되었고 1951년부터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도 유학생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은 1953, 1954년에 전후복구를 위한 원조의 일환으로 유학생, 산업실습생, 전쟁고아, 견학단 등을 받아들였는데 북한유학생 총수가 5천여 명을 상회하여 최고정점을 이루고 있다. 각국은 전쟁 전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북한유학생을 받아들였다. 이는 물론 전후 복구와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후복구를 위해 각 나라별로 전문기자와 기술자를 파견하였다.

<표 4> 북한 유학생의 소련 고등교육기관 입학과 졸업 현황(1945~1985년)

| 년도 | 1945년 | 1946년 | 1947년 | 1948년 | 1949년 | 1950년 | 합계 | | | |
|----------------|--------|--------|---------|--------|---------|----------------|--------|-------|-------|---------|
| 입학생/ 졸업생(명) | - | (230) | 140/- | 60/- | 90/11 | 165/8 | 455/19 | | | |
| 1951년 | 1952년 | 1953년 | 1954년 | 1955년 | 1956년 | 1957년 | 1958년 | 1959년 | 1960년 | 합계 |
| 129/41 | 262/52 | 218/73 | 79/107 | 69/157 | | (77) | | (19) | | 757/430 |
| 1961년 | 1962년 | 1963년 | 1964년 | 1965년 | 1966년 | 1967년 | 1968년 | 1969년 | 1970년 | 합계 |
| -32 | -2 | -4 | -4 | 2/4 | - | 34/4 | 18/8 | 16/11 | 2/10 | 72/86 |
| 1971년 | 1972년 | 1973년 | 1974년 | 1975년 | 1976년 | 1977년 | 1978년 | 1979년 | 1980년 | 합계 |
| -1 | 7/6 | 35/5 | 22/12 | -14 | 50/8 | 13/15 | 6/9 | 21/9 | 49/10 | 203/89 |
| 1981년 | 1982년 | 1983년 | 1984년 | 1985년 | 합계 | 총계(1945~1985년) | | | | |
| 135/66 | 133/80 | 147/71 | 286/125 | 165/96 | 866/438 | 2353/1062 | | | | |

출처: В. А. Белов, *Подготовка Кадров Для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В Советских ВУЗах* 소련고등교육기관에
서의 외국 유학생의 교육,(Калининград, 2003), 212~219쪽 정리.

필자 주: 1956~1960년까지 빈 칸은 이 자료의 저자가 수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고, ()는
필자가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의 자료를 덧붙인 것임.

소련의 고등교육기관에 다녔던 북한유학생의 입학과 졸업 현황은 <표 4>와 같다. 이 수치는 소련의 중등교육기관이나 재교육기관, 당·정·군 산하 교육기관에 다녔던 유학생 수를 제외한 고등교육기관 재학자이다.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그리고 1980년대에 유학생이 가장 활발하게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58년부터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분야만을 대폭 축소, 파견하기로 한 유학생 정책이 발표된 이후, 1960년대 전반기 소련으로 유학생이 전혀 파견되지 않았음을 표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로 파견된 북한 유학생의 총수는 1958년 1월 현재

<표 5> 북한의 해외유학생 현황(1958년 1월 현재)

| 1946~1957년까지 해외유학 졸업자 | | | 1958년 1월 현재 공부중인 유학생 수 | | | | | |
|-----------------------|--------|----------|------------------------|--------|-----|-------|-------|--|
| 중등전문학교 | 고등교육기관 | 대학원 | 중등전문학교 | 고등교육기관 | 대학원 | 산업실습생 | 전쟁고아들 | |
| 731 | 895 | 138 | 652 | 2,182 | 131 | 642 | 2,540 | |
| 총 1,764명 | | 총 2,965명 | | | | | | |
| 총계 4,729명 | | | | | | | | |

출처: АВПРФ, ф. 0102, оп.14, п.75, д.8, лл.104~106.

4,729명에 이르고 있다. 1960년까지 남한의 해외유학생 총수는 5,520명인 것에 비하여, 남한 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북한이 1958년까지 해외유학생 총수가 4,729명에 달하고 있다. 북한이 해외유학을 통한 고등인력의 확보에 얼마나 비중을 두었는가를 알 수 있다.²⁸⁾

<표 5>를 통해 본 유학생 정책의 특징으로는 유학생이 고등교육기

28) 북한의 유학생 정책은 남한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미군정 당시 정부차원에서 1946년에 남한교육재건을 위한 미국유학 추진계획이 마련되지만 재원문제로 실시되지 못했다. 군정 말기에 유학을 떠났을 것으로 짐작되는 50년대 초반의 미국유학 인정자는 10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남한에서 1951년부터 1961년까지 단기연수, 시찰, 교환교육의 형태로 해외훈련을 받은 인원은 총 2,309명이다. 이와 별도로 장기간의 유학을 한 정식유학생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남한의 해외유학생 인정자 통계(1951~1960)

| 연도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합계 |
|--------|------|------|------|-------|-------|------|------|------|------|------|-------|
| 유학생수 | 128 | 403 | 634 | 1,129 | 1,079 | 520 | 435 | 378 | 418 | 396 | 5,520 |
| 미국유학생수 | 108 | 364 | 576 | 1,041 | 963 | 429 | 359 | 299 | 350 | 312 | 4,801 |
| 미국유학생비 | 84.4 | 90.3 | 90.9 | 92.2 | 89.2 | 82.5 | 82.5 | 79.1 | 83.7 | 78.8 | 87(%) |

1960년까지 남한의 해외유학생 총수는 5,520명이다. 전후복구를 위한 원조의 일환으로 1954년에서 55년에는 1천여 명을 상회하여 최고정점을 이루다가 1956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지만 1960년대 말까지 400~5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유학생 중 미국유학자가 4,801명으로 전체 유학자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식, 「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 엘리트의 형성」,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161~164쪽.

관뿐만 아니라 중등전문학교로도 파견되었다는 점이다. 전후 복구를 위해서 고등전문가뿐 아니라 다수의 중등기술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자체 내에서 중등기술자를 대량으로 양성하는 한편 자격을 갖춘 중등 전문가는 해외유학을 통해서 양성하였다. 1957년까지 해외유학 졸업자 수가 고등교육기관 895명에 대해 중등전문학교는 731명이고, 1958년 현재 고등교육기관에서는 2,182명, 중등전문학교에서는 652명이 공부하고 있다. 전후 복구의 긴급한 과제가 제기된 1953년에는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로 파견한 전문학교 학생수가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수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이러한 현상은 중등전문학교는 고등교육기관에 비해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인력지원의 일환으로 전쟁고아들을 일정기간 양육하고 교육시켰는데 이들이 중급 기술자와 기사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중국에 2만 명, 동유럽에 약 5,000명에 달했던 전쟁고아들은 각국의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졸업한 후 기술학교나 중등전문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며 기술훈련을 받았다.²⁹⁾ 중국의 경우 전후 두 차례에 걸쳐 6천여 명의 북한의 기능공을 받아 훈련시켰다. 1958년 6월에는 중국에서 육 년 만에 귀국한 기술자 5백여 명이 평양방직공장에 배치되었고, 전쟁고아 2천5백 명이 중국의 공장과 농장에 일년간의 생산실습을 위하여 파견되었다.³⁰⁾ 전쟁 시기부터 파견되었던 전쟁고아들이 1958년경 소련, 중국, 동독,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에서 귀국하면서 초급 또는 중급 기술자로서 본격적으로 북한의 산업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29) АВПРФ, ф. 0102, оп.16, п.24, д.6, лл.16~17.

30) 조정아, “산업화 시기 북한의 노동교육”(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52쪽 재인용.

인력양성의 다른 특징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단기 시찰단이 아닌 실습생 형식의 견학단으로 다수 파견한 점이다. 예로 전쟁 중인 1953년 2월 21일에 “소련의 선진적인 문학예술을 연구 섭취하여 북한의 문학예술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연수생 11명을 1년간 소련에 파견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수생 명단에는 극작가 신고송, 작곡가 김옥성, 연출가 리서향 등 문화예술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망라하고 있다.³¹⁾ 또한 북한은 과학자 25명을 소련의 과학적 성과를 보고 배우게 할 목적으로 소련측에 3개월간의 실습을 요청하고 있다. 과학자 명단에는 홍남공업대학 물리강좌장 립극제, 과학원의 리승기와 계응상 등 지도적인 학자와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³²⁾

인력양성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해외에서의 산업실습생 양성을 들 수 있다. 해외 실습생은 전후 복구와 더불어 인민경제의 각 분야를 재 조직하는 데 필요한 계획, 운영, 설비, 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해외로 파견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기간과 전후에 대량으로 실습생이 파견되는데, 이들은 전후 북한 인민경제의 재편과 운영을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예로 전후 농업분야의 집단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1958년에 완전한 농업의 협동화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농업협동화의 모든 계획과 시행절차를 배우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북한정부는 1954년에 북한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해 소련의 국영농장성과 농업성 시설에서 8개월간 실습을 받게 할 목적으로 농업전문가 65명을 실습생으로 파견하였다.³³⁾ 또한 전후 복구 3개년 계획, 제1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나라의 행정부처와 산업체에 실습생들을 집중 파견하였다. 예로 1953

31) АВПРФ, ф 0102, оп.9, п.44, д.4, лл.15 ~ 26.

32) Там Же, лл.27 ~ 34.

33) Там Же, оп.10, п.52, д.9, л.59.; Там Же, оп.10, п.52, д.8, л.103.

년 소련의 각종 산업체에 414명, 1954년에 6개월간 직업교육 실습생 10명, 1955년에 소련 건설성 산하 기관에서의 연수를 위해 20명, 1956년 소련 내무성 산하 연수를 위해 23명 등을 파견하였다.³⁴⁾ 또한 “북한은 광산 2개 및 기관차 정비공장의 복구를 위해 폴란드 전문가 31명을 초청하였으며 폴란드는 위의 시설을 다룰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북한의 전문기사, 기술자, 노동자 100명 이상을 자국에서 연수하도록 하였다.”³⁵⁾

해외 유학생 및 실습생들은 북한의 전문 인력 양성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국내에 돌아와서 교수, 전문가로서 학계에 자리를 잡거나 혹은 인민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예를 들자면 1955년에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구성에서 약 41%가 3년 미만의 교원 경력을 가진 새 교원들인데 이들은 주로 최근에 종합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소련에 유학하였다가 귀국한 유학생들이었다.³⁶⁾ 또한 1954년 현재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육을 받은 400명의 전문가들이 건설과 생산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40명이 준박사학위를 받고 조교수의 직위에 있다. 해외유학자 다수가 내각이나 행정부서의 장, 책임 있는 전문기사로 일하고 있다. 예로, 중공업성과 산하의 산업체에 532명의 전문기사가 일하고 있는데 이들 중 64명이 소련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했다.³⁷⁾

이와 같이 해외에서 양성된 고등인력은 사회주의 국가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북한에 도입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과학문화유산이 미천한 북한에 새로운 선진기술과 연구성과들을 도입하

34) Там Же, оп.12, п.68, д.5, л.146.

35) Там Же, оп.10, п.52, д.9, л.78.

36)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 126쪽.

37) Там Же, оп.10, п.59, д.57, лл.6~7.

고 보급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외국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전달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강선제강소의 한 기사장은 북한 공장의 현실에 어두운 유학생 출신 기술자들의 경향을 비판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양성된 기술자들은 외국의 산업설비와 공장 실정, 원료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자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어둡다는 것”이다.³⁸⁾ 따라서 반종파투쟁이 확산되면서 소련의 형식과 방법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을 교조주의로 비판하고 기술교육 및 고등인력 양성에 있어 소련에 의존하지 말고 북한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양성 할 것이 강조되어진다.

4. 8월 종파사건 이후 교육계·학계의 사상검열운동

북한은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1947년에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거쳐 1948년 9월에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설하였다. 초기 북한의 당과 국가는 여러 정파간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여러 정파간의 균형에 입각한 권력구조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깨어지게 된다. 그 시초는 국내파 공산주의자의 거두인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리승엽, 림화 등 남로당파에 대한 숙청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남로당파에 대한 숙청 및 소련계 허가이의 자살은 46년 8월 북조선노동당 창립 아래 유지되어 왔던 빨치산파와 연안파, 소련파 등 해외출신 세력 사이의 제휴관계에 금이 가도록 하였다. 남로당파가 숙청되고 소련파와 연안파 등의 해외출신들이 비판을 받으며 점차 자신의 위치에서 밀려났다. 대신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파가 그

38) 리재천, “기술 교육 사업에서의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퇴치하자,”『근로자』, 1956년 제12호; 조정아, “산업화 시기 북한의 노동교육,” 53쪽에서 채인용.

세력을 넓혀나갔다.

전후 1950년대의 권력 갈등은 전후 복구계획을 둘러싸고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조선로동당은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당중앙위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중공업 우선,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을 경제복구건설의 기본노선으로 확정했다.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부터 경험적인 농업협동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부 세력이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중공업보다는 소비재를 공급하는 경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주장하였다. 또한 농업협동화 문제도 시기상조임을 들어 반대하였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중심의 당 지도부는 중공업 우선의 경공업, 농업의 동시발전과 농업협동화의 부분적 실시를 전후 복구건설 노선으로 관철 시켜 나갔다.

전후 경제계획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에 부딪쳐야 했다. 우선 계획을 집행할 엘리트의 선발과 충원이 시급했는데 이 문제는 전문가와 기술자 양성으로 해결해 나갔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각기관 및 산업체 관료들의 사업작풍이었다. 당 중앙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금유용, 관물착복 등으로 1953년 6월부터 1954년 6월까지 1년 동안에 당원 중 2만 2천 명이 적발되었다. 1955년 당 중앙위 4월 전원회의는 전 국영 및 협동조합부문 재산의 약 1/3이 착복되거나 낭비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전후 경제계획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는 농업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준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급속한 농업협동화의 결과로 1954년 북한은 해방 아래 최대의 흉작을 기록했다. 이런 상태에서 농업현물세 징수와 양곡구매사업의 강행으로 수만 명의 농민들이 아사를 하였으며, 불만이 농민의 전 계층으로 확산, 고조되었다.³⁹⁾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책임론’이 당내 전면에 부상하였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지도부 내 균열은 책임소재를 둘러싼 당내 공방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을 당원들의 계급의식 해이와 간부들 사이에 팽배해 있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그리고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에서 찾았다. 1955년 4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이전에 외국에서 활동했던 지도일꾼들, 특히 소련계, 연안계의 출세주의적 경향을 비난하였다. 소련계와 연안계에 대한 전면적 인 공격은 1955년에 이어 56년 초까지 이어졌다. 연안계 박일우와 소련계 박창옥, 박영빈, 기석복, 김열 등이 당중앙위원회에서 제명되었다.⁴⁰⁾

이런 상황에서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가 열렸다.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의 개인숭배는 물론 그의 강압적인 대외정책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분열을 야기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소련은 ‘사회주의로의 다양한 길’을 인정하며 폭력적인 전제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후르시초프의 연설은 대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와헝가리에서는 자유화 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국내적으로는 그동안의 당 지도부의 조치에 대해 소련파와 연안파가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반대파들의 공개적인 도전은 소위 ‘8월 종파사건’으로 일컬어지는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연안파와 소련파가 주축이 되어 김일성을 당 지도부에서 축출하고자 했으나 이들의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반대파의 행동은 ‘반당종파행위’로 규정되어 윤공흠, 서휘, 이필규는 출당되고 최창익, 박창옥에게는 당직이 박탈되는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사태는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소련과 중국이 북한의 국내정치에 개입하였고, 김일성은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여 8

39) 백준기, “1950년대 북한의 권력갈등의 배경과 소련,” 457~469쪽.

4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집』(1956), 49~58쪽.

월 전원회의의 결정을 번복하여 연안파와 소련파 일원들을 복당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면 전환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1956년 10월에 형가리 사태가 발생하여 국제 공산진영이 분열하기 시작했고 1957년부터 중소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이들 국가들이 북한 정치에 개입할 틈이 없는 사이에 김일성은 다시 반대파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1959년까지 전사회적으로 ‘반종파투쟁’을 단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비판 세력을 일소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대대적인 반종파투쟁이 전개되기 전, 1956년의 국내외 정세는 북한의 지식인들에게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식인들 사이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개진되었다. 문화계에서는 도식주의 및 신격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시되었고 작가들에게는 이전과 다른 자율성이 부여되는 것 같았다. 정치분야에서 공개적인 김일성 비판이 시도되었듯이, 학계에서도 비공개적으로 개인승배가 나쁘다거나 노동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당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움직임은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해외유학생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해외 유학생 중에서도 형가리 유학생들은 가장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자유화 운동의 산체험자인 형가리 유학생들은 졸업을 앞둔 110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전쟁고아들을 포함한 약 1,200명의 학생이 1957년 1월에 모두 북한으로 소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 몇 명이 서독과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쳤다. 평양역에서 형가리 유학생 귀국 환영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일부 귀국생들은 평양 학생들과 만나는 동안에 거만하게 보이며 고국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불만을 시위로 표현하기도 했다.⁴¹⁾

41) Там Же, оп.13, п.7, д.6, лл.43~45, л.78.

또한 헝가리 사태 이후에 특히 유학생들이 귀국한 후부터 대학과 기숙사의 공공장소에 선동적인 내용의 뼈라가 나돌기 시작했다.⁴²⁾ 북한당국은 귀국한 유학생들을 예의 주시하였고 일반 대학생들과 분리하여 별도로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북한당국은 귀국 유학생들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귀국학생들은 현지적응과 정치교양사업을 위해 별도의 건물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종합대학의 몇몇 교수들이 이들에게 강의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강의가 재미없으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거나 발을 구르거나 교수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졌다. 대담이나 세미나에서는 북한정부가 헝가리 카다르정부의 경제지원을 거절한 것은 헝가리 국민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로써 이는 잘못되었다거나 유고의 티토 발언은 정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평양 주민 대부분이 걸어 다니고 있는데 일제시대의 세 바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건설할 것을 제안하면서 북한의 항후 중공업발전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⁴³⁾

해외 유학생들의 심상치 않은 동향에 위기를 느낀 북한은 1957년 2월 두 그룹의 해외방문단을 구성하였다. 로동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이 동행한 한 그룹은 폴란드, 동독, 체코, 소련의 교육기관을 방문하였고 외무성 고문의 한 사람이 이끈 다른 방문단은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중국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해외방문단의 실제 목적은 폴란드와 헝가리 사태 이후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검열하고자 한 것이었다.⁴⁴⁾ 소련에서는 방문단과의 대담에서 몇몇 학생들이 공개적

42) Там же, оп.13, п.74, д44, лл.2~8.

43) Там же, оп.13, п.7, д.6, лл.82~83.

<표 6>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전후한 교육계의 동향과 사상검열 과정

| 연도 | 교육계의 동향과 사상검열 |
|------------|---|
| 1956.2. | • 제20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며 ‘사회주의에로의 다양한 길’ 인정 |
| 1956.8. | • 8월 종파사건: 연안파와 소련파가 주축이 되어 김일성을 당지도부에서 축출하려 했으나 실패로 끝남 • 최창익, 윤공흠, 서휘, 이필규, 박창옥, 김승화 등이 당에서 제명, 숙청됨 |
| 1956.10. | • 형가리, 폴란드의 자유화 운동 |
| 1957.1. | • 전쟁고아를 포함한 형가리의 북한유학생 약 1,200명이 본국으로 소환됨 • 폴란드의 북한유학생의 소환(시기 불분명) |
| 1957.2. | • 해외유학생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로동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부장을 단장으로 소련·폴란드·동독·체코슬로바키아에 교육기관 방문단의 파견 • 해외유학생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외무성 고문을 단장으로 중국·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에 교육기관 방문단의 파견 |
| 1957년 여름 | • 정치사상 검열을 목적으로 매년 여름방학에 해외로 파견된 북한유학생의 일시 본국 소환 교육이 이루어짐 |
| 1957년 3월부터 | •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에서 반종파투쟁을 위한 당집회 개최 • 김일성종합대학의 역사학부 학장 김정도, 마르크스·레닌주의 기초 강좌장 송군찬, 정치경제 강좌 교수 림해, 세계사 강좌 교수 김현수, 심방학 강좌 교수 이동식, 철학 강좌 교수 송택영, 그리고 이들에 동조한 학생들 약 100여 명이 사상검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됨 |
| 1957년 2~8월 | • 내각 교육문화성에서 반종파투쟁 전개 • 교육문화성 간부 13명이 체포·억류되었고 이데올로기 분야에서 일한 약 50명이 다른 곳으로 이직됨 |
| 1957년 가을 | • 북한 과학원에서 반종파투쟁 전개 • 역사연구소장 겸 과학원 사회과학위원장 이청원을 비롯한 최익한, 김소령 등이 사상검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됨 |
| 1957년 | • 평안남도 한 도에서만 정치적 이유로 초·중등학교 교사 약 3,000명을 교체함 |
| 1958~ | • 1958년부터 사회주의국가에 해외유학생의 파견 숫자를 대폭 감축한 데 이어 1960년에는 일체 파견하지 않음 |

출처: 필자가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의 자료를 정리한 것임.

으로 8월 종파사건의 경위를 질문하고 개인승배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 이후 반김일성 운동을 주도한 상당수의 유학생들은 북한으로 잡혀가 숙청되었고 10명 정도의 학생이 소련의 도움으로 북한으로 소환되지 않고 남을 수 있었다.⁴⁴⁾

44) Там же, оп.13, п.7, лл.105~106.

45) 2003년 3월 6일, 최선옥 구술. 최선옥은 북조선왕조성립비사의 저자인 임은 (본명 허진)의 아내로서 두 사람은 한국전쟁 초기 소련유학생으로 선발되었

이와 같이 해외유학생들 가운데서 제기되고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는 유학생 정책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교육문화성 부상 장익환은 소련을 제외한 동유럽국가로 당분간 유학생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채택 하였으며, 유학생들이 고국 북한의 생활을 이해하게 할 목적으로 1957년부터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 약 150명 정도로 구성된 유학생들을 북한으로 일시 소환하기로 결정하였다.⁴⁶⁾ 이런 정책의 변화는 이미 1957년 1월 김일성의 발언에 의해 예견된 것이었다.

전쟁기간에 해외로 파견된 북한젊은이들은 당시 선발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도 없었다. 이제 해외로 파견할 학생의 숫자를 대폭 감축시키고 그들의 선발과정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향후 형제 나라에는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필요한 수의 학생들만 그들의 지식을 완성시키기 위해 파견될 것이다.⁴⁷⁾

이로써 동유럽 국가에는 유학생을 파견하지 않기로 하였고 소련에는 극히 적은 수만 파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소련에만 유학생을 파견하기로 한 정책도 곧 시련을 맞게 된다. 1956년부터 58년까지 진행된 모스크바 유학생들의 반김운동과 귀국을 거부한 일부 유학생들을 소련정부가 북한으로 넘기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북한은 1959년에 19명만을 소련으로 파견하였고 1960년부터는 유학생을 아예 파견하지 않기로 하였다.⁴⁸⁾

다. 1957년 2월 소련방문단과 유학생의 대담에서 허진은 공개적 비판 발언으로 북한으로 소환될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고 최선옥과 함께 소련에 남았다.

46) Там Же, оп.13, п.7, д.6, л.201.

47) Там Же, оп.13, п.7, д.6, л.109.

48) Там Же, оп.16, п.86, д.15, л.4.

1956년 국내외 변화 과정에서 교육계와 학계에는 엄청난 변화가 수반되었다. 8월 종파사건 이후 각급 당단체별로 종파주의와 분파주의와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우선적으로 최고 교육행정기관인 교육문화성과 최고의 엘리트 양성기관인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사상검토와 숙청 작업이 전개되었다. 헝가리 사태 이후 노동당 중앙위의 지시에 따라 당의 통일을 강화할 목적으로 1957년 3, 4월에 종합대학을 비롯한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종파주의를 폭로하는 당집회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노동당 중앙위는 노동당과 내각의 주요 관료들 40명으로 그룹을 구성하였고, 이들을 교수와 학생들의 이데올로기 사업현황을 검열하도록 3개월간 교육기관에 파견하였다. 김일성대학에도 로동당중앙위 검열위원회들이 파견되었다.⁴⁹⁾

우선 종합대학의 당검열과정을 살펴보면, 종합대학 당 전체회의에서는 「종파주의의 해악과 그 후과」라는 보고가 있었고 종파주의자로 최창익, 박창옥, 김승화가 거론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이들 이외에 종합대학의 일부 교수들도 종파주의자로 거론되어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일부 교수들이 헝가리 사태 이후에 민주주의의 확대, 인민생활의 향상, 노동당의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을 슬로건으로 당의 통일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들은 북한 정세를 가르치기는커녕 교수들의 생활과 지위 향상을 지지하고 있다. 종합대학 내에서도 특히 사회과학 강좌 교수들이 오염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⁵⁰⁾ 비판을 받은 교수들의 사상검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준박사학위를 받은 김정도 역사학부 학장은 20세기 조선 민족해방운동이 러시아 10월 혁

49) Там Же, оп.13, п.7 д.6, лл.194 ~ 197.

50) Там Же, оп.13, п.74, д.44 л.7.

명의 영향하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뼈 째르부르그의 봉기는 사실상 서울의 인민대중의 집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었다고 발언하였다.⁵¹⁾

마르크스-레닌주의 기초 강좌장 송군찬은 소련에 대한 북한의 자주적 태도를 암시하면서 소련과 북한의 상호관계가 이제 끝장나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진술하는가 하면, 노동당의 국내정책을 비판하면서 수상의 직위에 있던 최창익조차도 인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향상시키고자 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국제관계가 평화가 아닌 전쟁으로 가고 있는 것같이 복잡하기 때문에 민족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하였다.⁵²⁾

정치경제 강좌 교수 림해는 노동당의 경제정책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며 주민들은 깔주리고 있으며, 무식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통치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⁵³⁾

세계사강좌 교수 김현수는 유고슬라비아의 대내외 정책과 그 지도자들의 발언에 찬성을 표시했다. 또한 북한에는 학문에 있어서 조차 자유가 없다는 것과 유사한 생각을 지지하고 있고 이 나라의 지도층은 무식한 사람들이며 지도층을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고 밀했다.⁵⁴⁾

종합대학의 이러한 동향과 결과에 대해서 교육문화성 부상 장의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들은 모두 종파주의자 최창익 편

51) Там Же, оп.13, п.7, д.6, лл.160~161, л.198.

52) Там Же, лл.196~199.

53) Там Же, лл.196~199.

54) Там Же, лл.196~199.

이며 그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이러한 발언들이 종합대학의 일부 학생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 이런 저런 형태로 상기의 교수들의 발언에 동조하며 지지를 표명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100여 명이 넘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수와 학생들은 물론 중등교육기관의 교원들 일부도 8월 전원회의 이후에 형가리 사태와 관련하여 정치적 미숙과 이념적 해이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평안남도 한 도에서만 정치적 이유로 초·중등학교 교사 약 3,000명을 불가피하게 교체하였다.⁵⁵⁾

또한 노동당 중앙위 조국통일부 부장 김청한은 1957년에 있었던 교육문화성의 반종파투쟁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교육문화성에서는 <노동당에서의 종파주의의 해악과 당 계급구성의 향상>이라는 의사일정으로 1957년 2월부터 8월까지 당회의를 진행하였다. 당회의의 결과 약 300명으로 구성된 교육문화성의 당원들의 이념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문필가, 배우, 평론가 및 교육문화성의 간부 일부가 노동당에는 민주주의가 없으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육문화성에서 13명이 체포되고 억류되었으며 이데올로기 분야에서 일했던 약 50명이 다른 업무로 옮겨졌다.⁵⁶⁾

1952년 12월에 창립된 과학원에서도 종파주의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다. 과학원 후보원사인 장주익에 의하면, 과학원에서는 1957년 가을에 12일 동안 당집회가 열렸다. 과학원 회원 중 김소령, 이청원,

55) Там Же, лл.198 ~ 199.

56) Там Же, лл.280 ~ 281. 체포된 사람 중 문화성 부상은 종파주의자와 관련이 있었다. 『예술』 편집에서 일했던 한 사람은 김구의 전개인비서로서 남한의 스파이와 관련되어 있었다.

최익한이 특히 비판을 받았다. 1945년 남한에서 공산당에 입당해 48년이후 월북한 김소령은 소련 제20차 당대회 이후 공개적으로 “우리의 경애하는 지도자 김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거나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원이자 역사연구소장 및 과학원 사회과학부문 위원장인 이청원과 그의 장인 최익한도 심하게 비판을 받았다. 현재 이청원은 역사연구소장직에서 직위 해제되어 교육과학출판사에 교정원의 하위직으로 일하고 있다.⁵⁷⁾ 일제하 국내 사회주의 지식인의 인식을 전형적으로 대표했던 이청원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숙청은 적지 않은 의미를 던져 준다. 그는 종파주의에 관여했다는 정치적 이유로 비판을 받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청원 계열의 반주류적 역사인식이 당 주류의 ‘주체’적 역사인식과의 갈등에서 패배하여 역사학계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같이 1956년 8월 종파사건과 형가리 사태 이후에 전개된 교육문화계의 사상검열과 숙청은 고등인력의 성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문화성을 비롯한 일선 교육행정기관, 대학교, 연구소, 초중등교육 기관 전반에 걸친 반종파투쟁의 전개는 교육계 어느 곳에서도 당정책에 대한 반대자, 심지어 상이한 의견조차도 제기될 수 없음을 의미했다. 비판을 받은 교수들은 형가리 사태나 유고의 티토 발언에 대한 지지, 개인숭배 비판, 중공업 우선 정책에 대한 비판,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지지, 민주주의의 확대 등의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상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로동당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이견은 당연히 검열의 대상이었고, 교수들의 지위 향상과 같은 학교내 문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로동당 정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은 곧 사상검열과 숙청의

57) Там Же, л.333, лл.348~349.

대상이 됨을 의미했다. 따라서 1956년 이후부터 대대적으로 전개된 반종파투쟁의 결과, 북한의 교육계와 학계는 로동당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지식인들을 배출하는 산실이 되었으며 이와 다른 의견이나 이론은 설 곳을 잃어 버렸다. 따라서 반종파투쟁 시기를 전후하여 고등인력 및 간부의 요건으로서 개개인의 전문성보다 당성과 정치사상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5. 전후 북한사회의 재편과 고등인력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은 1950년대의 격렬한 정치 갈등과 사회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체사상 및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해방 후 소련 군정의 경험, 한국전쟁 및 전후 복구과정에서의 중·소의 결정적인 원조 등 북한사회는 외세 개입의 공간이 크게 확장되었고 일부 세력화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었다. 북한사회의 전 영역에서는 교조주의적, 사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소련을 비롯한 외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사회문화 전반에는 소련과의 수직적 관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체제 유지와 이데올로기 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 부문은 특히 소련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주요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는 소련계 한인이나 소련고문들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모든 교육체제와 내용은 소련을 모델로 개편되었다. 전문 인력의 상당부분은 소련유학을 통해 양성되었고 그들을 통해 소련의 학문체계와 과학기술이 북한으로 전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체’의 문제는 교육·문화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체 확립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북한의 구체적 현

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로 제시되었다. 소련의 지식과 경험을 ‘교조주의’적으로 모방하지 말고 북한의 구체적 조건, 민족적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이 제시되었다.⁵⁸⁾ 따라서 교육에서의 주체적 인식은 당시 풍미했던 소련식 모방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과목에서 북한의 구체적 현실에 맑스-레닌주의가 창조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소련이나 기타 외국의 교과서와 문헌들의 이용에 있어서 교조주의적으로 이식되는 점은 없는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목과 교육내용의 전면적인 개편이 뒤따랐다.⁵⁹⁾

또한 당 지도부는 당·국가기구의 정통성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교육기관과 당 교양기관에서는 ‘혁명전통’의 확립과 교양을 중시하였다. 정치교양사업에서 북한의 혁명역사, 즉 로동당사와 실제 당 사업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기관에서는 기존의 맑스-레닌주의 관련 교과목 외에 ‘조국의 자유 독립과 민주 건설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이 필수과목으로 등장하였다.⁶⁰⁾

북한의 고등인력 양성 정책은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의 요구에 따라 대학을 급속히 확장하고 전문가와 기술자를 대량으로 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가건설기(1945~1950)에는 일제가 파괴한 산업시설의 복구와 주민생활의 정상화, 또한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술자들을 양성하고자 했다. 한국전쟁과 전후복구 3개년계획기(1954~1956)에는 전후 인민경제 전반에 걸친 복구사업에 주력하고, 중공업을 우선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을 목적으로

58)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1955. 12. 28.).

59) 신효숙, “북한 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한 논의－사회주의 교육에서 주체교육 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1호(2001), 61~63쪽.

6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집』, 112~114쪽.

기반 산업의 구축에 주력했던 시기이다. 한국전쟁기간에는 해외로 유학생과 기술자를 파견하는 해외의존 고등인력 정책을 실시했다면, 3개년 계획기에는 국내적으로 대학과 기술교육기관을 증설하면서 동시에 해외로 유학생, 기술자, 전쟁고아들을 파견하여 고등인력을 양성했던 시기이다. 사회주의 경제 성장기(1957~1960)에는 사회주의 경제의 공업 기반 구축을 위해 중공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로서 점증하는 전문 기술 인력의 요청에 따라 대학정원의 70%를 이공계열과 인민경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소련의 제20차 당대회 및 그 여파로 인한 동유럽의 자유화 운동, 북한의 8월 종파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서 전개된 반종파운동을 계기로 해외 기술원조에 의존하는 북한의 인력양성 정책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교육에서의 주체 확립은 북한 자체에서 고등인력을 양성하고 충원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가장 먼저 해외 유학생 파견의 감축으로 나타났다. 1957년부터 유학생 파견 숫자를 대폭 감축했고, 1958년부터는 대학졸업자에 한하여 필요한 분야만 소수를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1960년부터는 완전히 중단해 버렸다. 이러한 유학생 정책의 변화에는 일차적으로 반김일성 운동의 확산을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에서 취해졌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1950년대 후반은 전후 복구가 완료되고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전쟁 직후와 같은 전문가, 기술자의 절대 부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해외유학자들이 대거 귀국할 시점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고등인력을 해외에 의존하기보다 북한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유학생 수의 감축은 북한 자체의 지식과 기술로 향후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고 달성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경제계획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기술자와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 문제는

1957년 8월에 고등교육기관을 증설하는 조치로 해결해 나갔다. 1957년에 20개였던 대학은 1960년에 78개로 급증하였다. 교육기관의 증설을 통한 대량의 전문가 양성계획은 경제계획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조치이면서 동시에 해외유학생의 감축에 따른 부족한 전문 인력을 자체 충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등교육기관의 증설을 통한 전문 인력의 양성 계획은 양적 증가는 가져왔으나 지식과 기술 수준의 향상이라는 질적 심화로는 이어지지 않은 듯하다.

1950년대 고등인력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는 고등인력의 계급구성의 변화를 위해 ‘입학규정 개혁’을 단행한 점이다. 북한당국은 1956년의 정치적 위기와 이에 동조한 대학내 불건전 세력은 교수 인력의 배치와 전문 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정치적 기반의 미비와 계급적 이익을 망각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학생들의 계급구성의 변화를 목적으로 대학의 ‘입학규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새로운 입학규정은 중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대폭 줄이고, 대신에 산업체나 농장, 또는 군에 복무하는 자를 소속 당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우선적으로 입학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이 결과로 1958/59학년도에 고등교육기관 총 입학자의 70%가 근로청년들로 구성되었다.⁶¹⁾ 이와 같이 고등인력의 노동계급화를 도모하는 교육정책은 이후 북한의 고등인력정책의 특징으로 지속된다.

전후 고등인력의 재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교육계와 학계에 대한 사상검열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김일성 지도부의 정책에 대항했던 정치집단들, 즉 소련과 중국과 같은 외세와 일정한 연계를 맺고 있던 소련파와 연안파가 숙청의 대상이었다. 이어서 1957년부터 1959년까지 진행된 반종파투쟁 과정에서는 지식인의 상당수가

61) Там Же, л. 201.: Там Же, оп.19, п.34, д.32, л.33.

사상검열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반대파들에 대한 숙청과 주체의 확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주체의 형성 과정에서 북한은 다양한 정치 세력과 지식인들을 수렴하지 않고 당 정책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모두 교조주의자, 종파주의자로 숙청하였다. 당 지도부는 비판적 지식인들을 당의 통일을 저해하고 주체적이지 못한 종파주의자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주체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 정책과 다른 의견을 가진 지식인들은 모두 사상검토의 대상이 된 반면에, 당 정책을 지지한 지식인들은 1960, 1970년대에 진행된 주체 확립의 과정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1950년대에 진행된 지식인들에 대한 사상검열은 교육에 있어서 대소 자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동시에,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에 대항할 지식인, 전문가 집단의 형성 가능성을 근절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동시에 전 사회적 사상검열과 숙청은 북한사회의 경직화와 전제적 권위주의 국가의 특성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 접수: 7월 21일 / ■ 채택: 8월 11일

참고 문헌

〈1차 자료〉

-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1955. 12. 28.).
김일성종합대학 편,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평양: 김일성종합대학발행, 1956).
북조선인민위원회 사법국, 『북조선법령집』(평양, 1947).

〈2차 자료〉

- 김광운, “북한 권력구조의 형성과 간부 충원”(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김기석,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에 관한 일 연구,” 『교육이론』, 제10권 제1호 (1996).
김남식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제5권(서울: 한길사, 1989).
김석형 구술, 이향규 녹취,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오』(서울: 선인, 2001).
김선희, “고등교육,” 김형찬 편, 『북한의 교육』(서울: 을유문화사, 1990).
백준기, “1950년대 북한의 권리갈등의 배경과 소련,”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서울: 역사비평사, 1998).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서울: 일월서각, 1986).
신효숙, “북한 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한 논의—사회주의 교육에서 주체교육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1호(2001).
_____,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2003).
_____,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개혁,”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1999).
_____, “해방후 북한 고등교육체계의 형성과 특징,” 『북한연구학회보』, 제2권 2호(1998).
오천석, 『한국신교육사』(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이만규, 『조선교육사』, 상권(서울: 을유문화사, 1947).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임대식, “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 엘리트의 형성,”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서울: 역사비평사, 1998).
『조선교육사』, 제3~6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김동규·김형찬 편집, 『북한교육사』(서울: 교육과학사, 2000) 한 권으로 재발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집』(1956년).
조정아, “산업화 시기 북한의 노동교육”(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АВПРФ로 약칭)

В.А.Белов, 『Подготовка Кадров Для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В Советских ВУЗах
소련고등교육기관에서의 외국 유학생의 교육』(Калининград, 2003).

ф.0102, Референтур по Корее Перв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а(제1극동부서
의 한국 보고서)

2003년 3월 6일, 최선옥 구술.

Abstract

Training and Reorganization of Higher Manpower in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n Society(1945~1960)

Hyo-Sook Sin(Korea Univ., Soongsil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training and its characteristics of higher manpower in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n society. Characteristics of training of higher manpower tried to consider among the interrelation with political and economical factors. Also,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dispatch of North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and the process of political-thought censorship of the educated clas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relation of higher manpower with the formation of 'Juche,' and to examine the effect on 'Juche' ideology in reorganization of the North Korean society and education.

Key Words: the training and its characteristic of higher manpower, students studying abroad, the educated class, political-thought censorship

필자 약력(계재순)

신효숙

고려대, 숭실대 강사. 주요 저서로는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교육과학사, 2003), 『조·소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자료와 북·러 협력 동향 분석』(과학기술부, 2004),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분석』(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 2004) 외 다수가 있다.